

# 높아진 페르시아灣의 波高

## 이란 - 이라크戰의 餘波 위험받는 油槽船 航路 - 油價 불안

지난 5월 17일 美海軍이 보유하고 있는 유도 미사일 적재함인 스타크號가 페르시아灣에서 피격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당초 死亡者 數가 3명이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만 해도 美國에서의 반응은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한 놀라움을 보인 정도였으나 18일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어나자 그 놀라움은 충격과 우려로 변하였다.

美國의 主要 TV 放送들은 이 사실을 매시간마다 톱뉴스로 보도하고 주무부서인 國家安全企劃部와 國防, 國務省에서는 非常이 걸리는 등 사태의 重大性을 시사해 美國人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世界的인 耳目을 集中시켰다.

西方世界의 石油輸入量의 20%가 통과하는 世界 最大의 石油輸送路인 페르시아灣에서 安全保障의 性격을 지닌 美軍艦 스타크號가 피격된 사건은 어느면으로나 輕視할 수 없는 사건으로 注目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요즘 OPEC會員國의 石油減産合意에 의하여 石油價가 上昇하고 있는 時点에서 이러한 사건이 發生하였다는 것은 石油市場에 一抹의 不安을 던져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페르시아灣을 運航하는 船舶에 대한 이란-이라크의 攻擊은 80年 9月 양국간의 戰爭이 발발한 이후 진전없는 교착상태에 빠지자 당시 수세에 몰리고 있던 이라크가 우세한 空軍力을 利用해서 84年初부터 이란의 産業施設과 페르시아灣에서 이란을 드나드는 船舶에 대하여 보복공격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후 소위 “油槽船 戰爭”은 끊이지 않아 그동안

이 지역을 통과하던 300여척의 各國 船舶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란-이라크 戰爭 이래 페르시아灣은 油槽船의 피해지역으로 항상 위기의 초점이 되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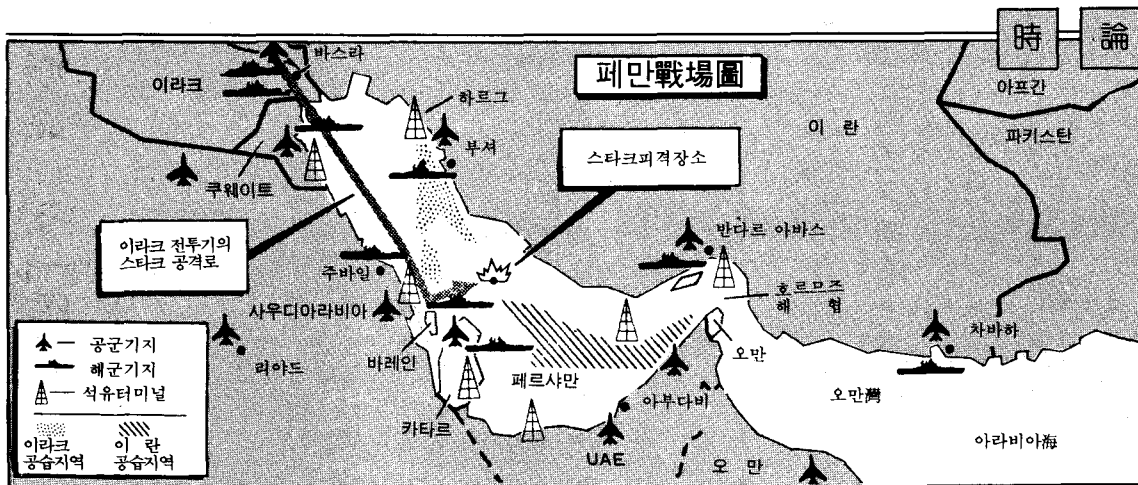
특히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한 것은 지난 3월 28日 새벽 韓國 船員 8名을 포함한 12名의 船員이 乘務하고 쿠웨이트를 떠나 싱가포르로 가던 싱가포르 선적의 油槽船 세드라號(998t)가 이란 海軍의 공격을 받아 韓國人 5名이 死亡하는 사건이 일어난 일이다.

작년 9月부터 쿠웨이트가 이라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란은 쿠웨이트를 드나드는 船舶까지도 攻擊을 가해 현재까지 이곳을 出港하는 船舶 10餘隻이 攻擊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난 3月 이란이 호르무즈 海峽 入口에 미사일 基地를 설치하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美國과 蘇聯은 서둘러 自國선박의 보호와 쿠웨이트와 아랍권의 선박까지 自由 航海를 보장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이 地域에서 美蘇間의 긴장이 고조되는 또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쿠웨이트는 美國이나, 蘇聯旗를 단 船舶은 安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란機는 아무리 다른나라 國旗를 달았어도 이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하고있는 것이다.

7年째 접어들고 있는 이란과 이라크의 消耗戰(兩國年間 戰費 60億달러)에서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벽에 부딪치게 된 “후세인” 이라크 大統領은 兩國이 無條件 徹軍 相互內政 不干涉등 事實상 停戰을 제의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라크가 敗戰을 시인하고 물러나지 않는 한



停戰을 하지 않겠다고 강경히 맞서고 있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戰爭을 自國內의 失業對策 反革命에 대한 強權발동 軍事구테다의 防止 등 體制維持의 手段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專門家들은 分析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란은 이라크와의 長期戰에서 이라크에게 經濟的, 政治的 타격을 주기 위해 유럽 석유수입국과 日本의 對이라크 압력을 노려 쿠웨이트를 드나드는 선박에 攻撃을 계속함으로써 美蘇가 페르시아灣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美國은 페르시아灣에 軍事力을 강화하여 이란에 대하여 이라크를 武力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주었으나 西方의 戰略要衝地인 이 海域에서 蘇聯과 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같은 美蘇가 對立하는 가운데 이란은 두 나라에 대하여 敵對的인 태도를 보이며 최근에는 호르무즈 海峽에 미사일 기지까지 설치하고 公공연히 石油航路를 위협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美軍艦 스타크號가 피격 되어 새로운 긴장감을 감돌게 하고 있다.

美國은 6月中에 기존 6隻의 軍艦外에 최신 대공장비를 갖춘 순양함 1隻과 기타戰艦 2隻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蘇聯에서도 지난 5月 29日 3隻의 掃海艇을 투입하여 작년말부터 활동중인 2隻의 프리게이트함과 합류시켰다.

그밖에 英, 佛, 파키스탄 등도 自國상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위함을 급파하는 등 좁은 페르시아灣은 그야말로 各國의 軍艦으로 초만원을 이룬 상태이다.

美國은 스타크號 事件을 계기로 페르시아灣에서의 自由安全航海 보장을 위해 軍事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수차례 걸쳐 표명해 왔다.

그러나 이란은 美國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유조선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大部分의 유럽石油去來業者들은 이번 事件이 世界 石油 公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페르시아灣 지역에서는 이번 사건이 世界 石油 市場의 價格變化를 당장에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이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변수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페르시아灣의 不安은 이地域 石油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關心事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今年에 1/4 분기에 도입한 石油은 모두 4,513万 5千 배럴인데 이중에서 페르시아灣을 통해 수입한 量이 51.4%의 過半數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페르시아灣의 정세가 악화되더라도 原油도입선이 79年과는 달리 中東地域 일변도에서 多邊化되어 東南亞 아프리카, 美洲 등의 도입량을 높이고 政府가 비축한 物量으로 3個月 以上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石油需給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워낙 中東地域에 대한 依存量이 크기 때문에 이지역의 정세에 대하여 銳意 注視하고 있는 것이다. (編輯室)